



현대 정신의학, 제약 산업, 관련 규제 당국으로 이뤄진 오늘날의 정신약물 연합체<sup>1)</sup>는 전문 의학 기술에 대한 대중의 믿음,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로 얻어낸 정당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건강보험 개혁법 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미국 정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의약에 관여하게 되고,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약칭 DSM-V 또한 2013년에 새로 증편되며, 생체인식 식별 기술과 연방 의료 감시가 종합적으로 시스템화되는 양상은, 정신의학적 행동 규범과 프로토콜이 갈수록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것임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정신약물 복합체가 설득과 믿음에 기초한 패러다임을 버리고 정상正常이라는 이상을 강요하면서 강압적이고 사기성 짙은 모델로 나아가는 태세를 취하는 듯하다.

“이성reason이란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인 반면에 지성intelligence이란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조작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진실에 이르는 수단이지만 지성은 세상을 효과적으로 왜곡하는 수단이다. 전자는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후자는 인간의 동물적인 근성에 속한다.”

- 에리히 프롬<sup>2)</sup>

1950년대 이후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홍보와 마케팅에서 정신약물 복합체의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지식에 순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광고 및 관련 판촉을 통해 그런 문화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약물의 사용과 대중화가 이뤄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미국인의 20%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최

소 한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여성과 10세 이하 어린이의 정신약물 사용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다.<sup>3)</sup>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졸로프트Zoloft, 셀렉사Celexa, 에펙서Effexor, 팩실Paxil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는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가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 중 하나이며, 12세 이상 미국인의 11%가 이 약물로 치료 중이다.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 기술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의사와 일반가정의들이 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의 판별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주관적으로 해석된 수많은 이상 행동에 지극히 포괄적인 행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신의학회APA도 “보통 이상의 우울증 증상” 등과 같은 추측성 질환에 대해 대부분 항우울제를 추천한다.<sup>4)</sup> 그러나 역사가 데이비드 힐리David Healy가 지적하듯 “SSRI선택적 세라토닌재흡수억제제에 대한 항정신병 약물 의존성 혹은 신경안정제 의존성은 현행 DSM IV상 병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sup>5)</sup>

1988년부터 1994년,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에서 항우울제 사용은 400% 가까이 증가했다.<sup>6)</sup>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2020년대 초에는 항우울제 복용자가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항우울제 판매가 2003년에 15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래,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약업계에서 그를 대신할 새로운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런 약이 쓸모없고 때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2016년에는 60억 달러까지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sup>7)</sup>

항우울제 소비가 4배로 폭증했다는 것은 곧 ‘우울증’과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도입이 제약 회사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울증과 항우울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중의 인식 속에 당연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미진하다. 제약 회사는, 때론 쓸모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약을 팔아치우기 위해 세심한 광고/홍보 아젠다를 세워 (대중적) 담론과 믿음에 막강한 파워를 휘두른다.<sup>8)</sup> 그러한 효과는 전문가의 의견, 이 경우 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등에 업은 바가 크다.

## 새로운 직종과 그 목적을 구축하기

2006년, 탐사기자인 존 래퍼포트 Jon Rappoport는 엘리스 메다보이 Ellis Medavoy라는 가명을 쓰는 한 고위급 홍보 전문가와 몇 차례 인터뷰를 실시했다. 메다보이는 에이즈를 비롯한 주요 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율/조작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었다. 그의 폭로성 발언 가운데는 정신과적 전문지식이 많은 부분 허위 선전 기술의 결과라는 내용이 있다. “문제=정신장애=의학적 진단=약”이라고 그는 풀이한다.

홍보 일이란 이런 현실을 포장하여 그럴듯한 과학적 배경을 입히고 온갖 ‘연구’들을 덧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크게 보면 이걸 마음을 주무르는 성직이예요. 대신 공식적이고 허가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설득해서 파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 누구도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뿐이다.’느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현혹하고, ‘치

료에 들어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는 식의 허튼소리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죠.<sup>9)</sup>

의약과 정신의학이라는 두 신神에 대한 대중의 신념을 구축하는 지난한 과정에는 광고와 홍보에 특화된 각종 절차가 포함된다. 이를테면 언어 전문가가 브랜드명을 작명할 때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다른 시냅스를 건드리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해서 모음과 자음의 원래 소리 즉 음소들로 특별한 의미와 감정까지 연상시킨다.”<sup>10)</sup> 대표적인 SSRI 약물인 프로작Prozac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마음에 특별한 공명을 올리도록 디자인되었다. “프로작Prozac에서 프로pro는 다소 평범한 시작이지만 p, z, k 사운드가 합쳐져서 활동적이고 대담한 느낌을 강하게 준다.” 프로작과 비슷한 약물인 졸로프트Zoloft도 같은 언어학적 설계를 거쳤다. “졸로프트Zoloft에서 ZO는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고 loft는 위로 끌어올린다는 개념이다.” 또 다른 SSRI 약물인 팩실Paxil에도 z와 k 사운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쪼개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 시퀀스 액션을 지원하는 활동을 은연중에 시사한다.”<sup>11)</sup>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제약시장이며, 특정 정신병 약물을 폭넓게 사용하도록 사회 전체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제약 업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1998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약물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2001년에는 미국식 직접 소비자에 대한 약물 광고가 급증하였고 3,642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의 약품 판매 가운데 50% 가까이를 미국 국적의 회사가 장악했다. 비서구문

화 환경에서 브랜드 약품의 인기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단시간에 대중적 인식을 조성하여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수요를 창출해낼 필요가 생겨났다.

1980년대에 일본 제약 회사인 메이지 세이카 Meiji Seika는 일본 규제당국의 승인 하에 ‘강박 장애’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일본에 강박장애 표준 진단 테스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표준진단을 참고하여 메이지 사 자체적으로 그 질병의 정의를 작성해나갔다. 이런 작업은 1990년대 후반 메이지 사가 자사의 SSRI 제품인 루복스 Luvox의 시판 허가를 얻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sup>12)</sup> 허가를 얻은 후 메이지 사는, ‘기분 장애’에 대한 처방으로 가벼운 안정제가 일반적이었던 나라인 일본 시장에 루복스를 안착시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들어갔다.<sup>13)</sup> 이런 관점에서 메이지 사와 협력회사들은 ‘신속한 문화 변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에 착수했다. 한 관찰자가 이렇게 설명한다.

한 가지 중요한 조치라면, 우울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바꾸는 것이었다. 일본어로 임상적인 우울증을 뜻하는 ‘우츠보우うつ病’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떠올려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메이지 사와 협력사는 마음의 감기라는 뜻으로 ‘코코로노 카제心の風邪’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겨울철에 코가 막힐 때도 약을 먹는데 우울증이라고 뭐가 다른가?’ 메이지와 그 협력사들의 마케팅 총괄자는 일본인 리포터들에게 우울증을 터부시하는 느낌을 걷어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라면 그 마음의 감기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sup>14)</sup>

미국은 정신 질환 치료약에 대한 인식 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큰 히트작인 SSRI 약물 프로작Prozac이 1988년에 시장에 나오기 여러 해 전부터 이미 우울증이 ‘치료’를 요하는 잠재적인 유행병이라는 인식이 대중의 마음에 자리 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속적인 재확인이 필요했다. ‘스크리닝 screening’이라는 의문스런 개념도 마찬가지다. 스크리닝이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기분’ 또는 행동을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로, DSM-V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사용하는 몇몇 미국 의료기관에서 현재 실행 중이다.

## 정신과와 경찰 주정부의 감시 구조

“과학에는 살아있는 두뇌에서 생화학적 불균형을 측정해낼 기술이 없다.”라고 의사이자 저술가인 피터 브레긴Peter R. Breggin은 지적한다. “생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추측은 사실 제약회사가 약을 팔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에 불과하다.”<sup>15)</sup>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 ‘검사’에는 질환의 존재를 판가름하는 객관적인 과학적 계량과 물리적 지표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 대신 일련의 질문에 대한 피검사자의 반응에 기해서 의견이 나온다.

지난 수년에 걸쳐 미국 대학 교정에 마케팅 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 세대가 정신건강 검사의 일상적 성격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항우울제 에פק서Effexor의 제조사인 와이어스Wyeth의 후원 아래 2000년대 초 10개 대학 교정에서 “정신건강 교육 캠페인”이 주최되었다. ‘대학에서의 우울증, 현실 세계, 현실 생활, 현실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90분짜리 프로그램이 대학 강당에서 진행되었고 MTV 스타이자 에פק서 사용자인 카라 칸Cara Kahn이 사회를 봤

다. 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울증 ‘검사’(이제는 공공 의료에서 일상적 기능이 되어버린)를 제공하면서는 “스트레스가 심해요? 와서 어느 정도지 알아봐요!” “와서 자기 기분을 테스트해보세요” 등 자못 경쾌한 톤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런 분위기가 프로작을 떠올리는 ‘우울증 검사’라는 말보다 잠재적 참가자들로부터 더 흥미로운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을 회사 직원들은 관찰했다.<sup>16)</sup>

만약 일부 업계/시장 추세에서 보듯이 향정신성 약물의 매력이 흐릿해지고 있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신약물에 상응하는 테라피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상됐던 항우울제 판매 부진과, 일탈적인 인간 행동과 그 교정에 대한 정신과의 피상적인 표현을 서구 정부들이 폭넓게 수용하는 경향은, 최근 널리 알려진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신 질환 증가가 젊은이의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그에 수반되는 약물 치료를 명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일부 기인한다는 주장과 잘 부합된다.

치료를 요하는 정신 장애의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확장된 DSM-V 특이행동 분류를 보면 앞으로 정신질환 검사가 어떠한지를 얼마간 예측할 수 있다. 이따금 담배 한 대씩 즐긴다고 털어놓는 사람이 ‘흡연 장애’로 분류될 것이다. 사교적인 자리에서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음주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커피나 아이스티를 너무 많이 마신다면 ‘카페인 중독’, 심하면 ‘카페인 유발성 불안 장애’일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거나 온라인 도박, 포르노 사이트 방문이 지나치거나, 웹 쇼핑을 자주 하면 ‘인터넷 중독’ ‘도박 장애’ ‘성욕과잉 장애’ ‘강박적 쇼핑 장애’ 등으로 분류될 것이다.<sup>17)</sup>

나아가 정신의학의 확장이 연방정부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억누를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 또한 높다.



확장 일로에 있는 정신약물 연합체의 사회 지배 문제를 환기시키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이 구축된 과정이  
 많은 부분 광고 및 홍보와 얽혀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이제  
 정신건강과 정신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전직 미 해병대 브랜든 룩 Brandon Raub의 최근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sup>18)</sup> 기상 조절이 자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거나 9/11 세계무역센터 붕괴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거론한다면 ‘편집 망상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다. ‘대테러 전쟁’의 근거가 미약하다거나 연방준비은행, 도를 넘는 경찰국가 문제를 환기시키는 활동가의 외침은 해결 방안이 없는 ‘반항성 장애’로 손쉽게 분류해버릴 수 있다.

이토록 정신병의 해석범위가 넓고 그것이 정신과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이가 정신약물 연합체의 정밀조사에 취약하며, 젊은 층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유명한 웹사이트인 PsychCentral의 편집자이자 심리학자인 존 그로홀 John M. Grohol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미국상담협회 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는 일반 가정의 및 신체/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케어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되고 조직화된 케어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유익하며,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발견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한다.”<sup>19)</sup>



날로 증가하는 정신 질환, 혹은 정신과 종사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비단 개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전체 경제권이라는 면에서도 심각한 결

과를 낳는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인구의 40% 가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유럽에서만 연간 수 천억 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 나온 어느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EU 거주자가 1억6500만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 논문의 주저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정신 질환의 거대한 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 정신 질환은 생애 초반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렸을 때 조기 선별 치료만이 갈수록 증가하는 심각한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sup>20)</sup>

미국 상담협회가 ‘통합적이고 짜임새 있는 육체적/정신적 보건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통합 케어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는’<sup>21)</sup> 미국에서는, 사적 보험에 가입해있고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까지도 DSM에 입각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감시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내놓은 2011 정신 질환 감시(Mental Illness Surveillance) 보고서에는 미국인의 25%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두 명 중 한 명이 후에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하여 ‘공공 건강 사무관, 학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대변인 그룹’으로 구성된 ‘공공 건강 감시’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정신 질환이 발병, 악화, 만연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다중 감시 시스템’이 구성되며.... 정신 질환과 다른 만성 질환(예컨대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알코올/약물 남용 등) 사이의 연관 관계를 평가한다.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인구를 파악하고 선별적 개입, 치료,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정신 질환 개입 결과를 평가할 방법을 제공한다.’<sup>22)</sup> 이 프로젝트는 이런 질병을 발견하고 진단하


는 데 DSM을 사용한다.

“우울증 치료율의 공공 건강 중요성이 헬시 피플 2020에 반영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미국 보건복지부의 10년 계획은 성인의 우울증 치료 확대와 어린이의 정신건강 문제 치료를 국가적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예방 서비스 대책팀을 발족하여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사’를 추천하고 있다. 정신 질환 감시Mental Illness Surveillance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책팀도 DSM을 진단 표본으로 사용한다.<sup>23)</sup>

## 결론

이제 미국 연방 정부와 보험 업계가 수많은 개인행동에 대한 DSM 분류 계획에 내재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과 사회는 “그같은 감시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집단적으로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어떤 의료 정보를 의료 감시 기구에 공개할지에 대해 개인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현금 없는’ 전자 금융 거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그나마 미미했던 개인정보의 영역마저 종식되고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가 완전히 현실화된다. 그런 광범위한 통제를 통해 개인의 특이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입’ 및 치료 대상자를 양산한다.

확장 일로에 있는 정신약물 연합체의 사회 지배 문제를 환기시키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이 구축된 과정이 많은 부분 광고 및 홍보와 얽혀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이제 정신건강과

정신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신약물 연합체가 이제 국립 의료 방호기관 및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의료 전략의 핵심 요소와 더욱 밀접하게 연대한다는 사실은 장차 약학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어 지속적인 대중 설득과 정부 칙령을 통해 가짜 의약품이 충족되지 못한 존재의 공허감을 매우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끝) 

- 이 글은 『From Persuasion to Coercion: PsychoPharma’s “Priesthood of the Mind”』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제임스 트레이시(James F. Tracy) |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 미디어학과 부교수. 미디어 역사, 정치, 문화를 연구했고 다방면의 학술지, 서적 등에 실렸다. 민주적 의사소통 협회(Union for Democratic Communication)의 협회지인 <데모크라틱 코뮤닉(Democratic Communique)의 편집자로 있으며, 곧 발간될 Project Censored의 <검열 2013: 2011-2012년에 검열된 주요 스토리 및 미디어 분석(Censored 2013: The Top Censored Stories and Media Analysis of 2011-2012)에 글을 기고했다. [memoryholeblog.com](http://memoryholeblog.com)에서 자세한 정보와 그의 글을 접할 수 있다.

역자 | 「지금여기」 편집부 |

## 참고문헌

- 1) This term was initially used by Peter R. Breggin in *Brain-Disabling Treatments in Psychiatry: Drugs, Electroshock, and the Psychopharmaceutical Complex*,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7.
- 2)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New York: Rinehart and Company, 64.
- 3) Shari Roan, “One in Five US Adults Takes Medication for Medical Disorder,” *Los Angeles Times*, November 16, 2011, <http://articles.latimes.com/2011/nov/16/news/la-heb-mental-health-20111116>
-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Antidepressant Use in Persons Aged 12 and Over, 2005-2008,” October

- 2011, <http://www.cdc.gov/nchs/data/databriefs/db76.htm>
- 5) David Healy, *The Creation of Psychopharmac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66–67, 330. DSM IV was published in 1994 and revised in 2000.
  - 6) CDC/NCHS, “Antidepressant Use.”
  - 7) “Antidepressants Give Drugmakers the Blues,” Reuters, March 23, 2012,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3/23/us-depression-drugs-idUSBRE82M0MK20120323>
  - 8) Ben Goldacre, “The Drugs Don’t Work: A Modern Medical Scandal,” UK Guardian, September 21, 2012,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2/sep/21/drugs-industry-scandal-ben-goldacre>
  - 9) Jon Rappoport, “An Interview with Ellis Medavoy (alias) About Power,” October 8, 2006. In Jon Rappoport, *The Matrix Revealed Vol. 1 (CD)*, 2012, <http://nomorefakenews.com/>
  - 10) Sharon Begley, “What Goes Into A Brandname? A Letter at a Time,” Wall Street Journal, August 31, 2002, D1. This section is adapted from an argument developed in James F. Tracy, “Between Discourse and Being: The Commodification of Pharmaceuticals in Late Capitalism,” *The Communication Review* 7, 2004: 15–34.
  - 11) Begley, “What Goes Into A Brandname?”
  - 12) Peter Landers, “Waiting for Prozac: Drugs Firms Push Japan to Change View of Depression,”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 2002, A1.
  - 13) Healy, *The Creation of Psychopharmacology*, 66–67.
  - 14) Landers, “Waiting for Prozac.”
  - 15) Peter R. Breggin, *The Antidepressant Fact Book: What Your Doctor Won’t Tell You About Prozac, Zoloft, Paxil, Celexa, and Luvox*,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1, 135.
  - 16) Paul Glader, “From the Make of Effexor: Campus Forums on Depression,”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0, 2002, B1.
  - 17) See Christopher Lane, “Bitterness, Compulsive Shopping, and Internet Addiction,” Slate.com, July 24, 2009, [http://www.slate.com/articles/health\\_and\\_science/medical\\_examiner/2009/07/bitterness\\_compulsive\\_shopping\\_and\\_internet\\_addiction.html](http://www.slate.com/articles/health_and_science/medical_examiner/2009/07/bitterness_compulsive_shopping_and_internet_addiction.html); Reuters/Luke MacGregor, “Digital Age Overload: ‘Internet Addiction’ to be Classified as Mental Illness, Russia Today, October 1, 2012, [정신약물에 정신을 내맡기다 · 제임스 트레이시 77](http://rt.com/news/internet-</a></li>
</ol>
</div>
<div data-bbox=)

- use-mental-illness-389/
- 18) Michael Kelley, "Marine Veteran Brandon Raub Sentenced to Up to 30 Days in Psych Ward for Facebook Posts," Business Insider, August 20, 2012, <http://www.businessinsider.com/former-marine-brandon-raub-is-being-held-in-a-psychiatric-ward-over-facebook-posts-about-911-2012-8>
  - 19) John M. Grohol, "What the Affordable Care Act Means to Mental Health," PsychCentral, June 29, 2012, <http://psychcentral.com/blog/archives/2012/06/29/what-the-affordable-care-act-means-to-mental-health/>
  - 20) Kate Kelland, "Nearly 40 Percent of Europeans Suffer Mental Illness," Reuters, September 4,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9/04/us-europe-mental-illness-idUSTRE7832JJ20110904>
  - 21) Michael Friedman and Kimberly Williams, "Supreme Court Decision Benefits People with Mental Illness," HuffPost Health Living, June 29, 2012, [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friedman-lmsw/aca-mental-health\\_b\\_1636839.html](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friedman-lmsw/aca-mental-health_b_1636839.html)
  - 22) William C. Reeves, MD, "Mental Illness Surveillance Amo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201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ublic Health Surveillance Program Office,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su6003a1.htm>
  - 23) CDC/NCHS, "Antidepressant Use."